

“예견된 사고... 지문조사하자” 사전투표 불신 거센 후폭풍

선관위 “확진·격리자, 투표함에 직접 넣게 할 것” 뒷북대책 세번째 공식사과에도 민심 격앙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나”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 “1번 찍은 용지였다는데 사실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불실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낙담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은 물론 부정투표 여부 확인을 위해 특정후보가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지문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후폭풍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선관위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전체회의를 열고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본투표를 9일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확진자 등이 같은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한 뒤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사전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해 직

접선거 위배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지를 확진자 등에게 배분한 사실도 인정했다. 선관위는 6일 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 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나중에 온 확진자 등에게 다시 주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일었다. 선관위는 세 번째 사과에도 나섰다. 선관위원은 7일 입장문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선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불실관리’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이종원 대기자

위 측은 혼란에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두고 ‘난동’이라고 표현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정작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우선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며 함구했다. 그는 사전투표 당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원장은 토요일이라 출근도 하지 않았다더라. 위원장이 대책을 세우고 뭐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제정신이나”며 “본투표 종료와 함께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전투표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에서 “선관위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과 중징계 및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나’라며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거짓 해명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으로 부정투표 염려는 없다”는 선관위 입장을 두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느냐”며 “많은(확진자 등 사전투표) 기표소는 1층 혹은 바깥에 별도로 만들었다. 2층에 있던 참관인들이 콘크리트 벽을 뚫고 1층 혹은 바깥의 사람들을 보라”고 했다.

부정투표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투표하려 했더니 이미 1번 찍은 용지를 줬다는 말이 있다. 광복 이후 거의 처음 듣는 상황”이라며 “누가 1번을 찍었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후보 기표란에 기표한 사람이 누구냐는 (해당 투표용지를) 전부 지문조사를 해보라 나 올 것”이라고 했다.

오주환 기자 jhoh@skyedaily.com

뉴스드립

노정희 ‘사전투표 불실관리’ 피고발... “응분의 책임 지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불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불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ukak**** 이번 선거 끝나면 모두 싸다 조사해서 바로잡자.

gaza****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

jk4**** 대통령선거를 초등학생 반장선거로 아냐.

李텃밭 경기도서 “투표하면 이긴다”... 安, 尹 손 꼭잡고 원팀 유세

경기서 합동 유세尹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 安 “文정부 자격없어” ‘대선 D-1일’ 8일 부산→ 서울 ‘경부선 상행선’ 피날레는 ‘서울 시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기 구리, 하남, 안양, 시흥 등 경기권 8곳을 수도권 권서 막판 스피드 유세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후보에 대한 유세 지원 사격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구리역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이어 경기지역 최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 앞 광장에서 하남 시민과 만났다. 이어 안양 평촌 중앙공원에서 ‘경제와 산업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윤석열이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오후 2시30분에는 시흥 상미시장입구를 찾아 시흥스마트허브 육성 공약을 제시했다. 안산 단원, 오산역, 광택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구리 유세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그는 “투표하면 민주주의가 살고,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 청년들이 미래를 제대로 꿈꾸고 설계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 투표를 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에 연세 드시고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잘 모셔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 지지 기반인 장년층 투표 참여에 심혈을 기울였다.

윤 후보는 IT 기업 메카인 분당구 판교동을 언급하며 “여기(구리)도 4차산업 혁명의 전진 기지가 되려면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청년들의 스타트업과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모여들어야 한다.

땅은 충분하다고 한다”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하며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대통령을 한다는 것인가. 무슨 기본주택, 임대주택 100만 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냐”라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남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28번 바꿨는데, 사람이 머리가 나빠도 28번을 실수할 수 있겠냐”라며 “코로나19 전염되듯 전국으로 (집값 상승세가) 퍼졌다”라고 했다. “국민을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 유리하게 주택 정책을 퍼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 유세에는 야권 단일화 파트너인 안 대표가 합류했다. 윤 후보와 손을 잡고 유세대에 오른 안 대표는 현 정권에 대해 “사람과 국민이 다른 점이 딱 한 가지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라며 “국민께 부끄러

움을 모르는 정권은 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면서 지원사격을 했다.

전날 서울 강동·중구·금천과 경기 의정부·동두천과 구로·양·김포·부천 등에 이어 이를 연속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일 유세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실성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혼란 속 코로나19 대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법안카드 유용 △이 후보를 향한 의혹에 지목했다.

한편으로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유세 일정으로 잡은 18일 중 9일을 수도권에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초박빙 구도에서 대선 전 최대 표밭이자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 민심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곳으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선거 유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해소 등이 주요 공략 포인트라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권의 최대 실적으로 부각하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에 수도권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대한민국에 봄이 온다’는 콘셉트로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북상하며 정권교체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유세 장소는 서울 시청 앞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안 대표와의 합동 유세가 추진 중이다. 장혜원 기자 hjjang@skyedaily.com

文, 삼척·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빨리도 갔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산불이 난 강원 삼척·경북 울진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으며, 다른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나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국가가 직접 복구하는 것”이라며 “아침에 출발하면서 울진·삼척 재난지역 선포를 제하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ju**** 아직도 기억난다.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ju**** 빨리도 갔네.

osun**** 마지막을 저렇게 장식하네.

ARIES GOLD
M C M L X X

Our Take on a Timeless Design

BLACK SEA
G9027 S-BKT-MB

블랙시(BLACK SEA) 윤석 다이얼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다이얼은 스페인에 떨어진 사라고사 윤석에서 잘라낸 다음 산 처리되어 여러분이 보는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시(BLACK SEA)의 윤석 다이얼은 겹치는 디자인 없이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블랙시(BLACK SEA) 윤석은 에리스골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멀리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주의 한 조각을 내 손목 위에’

©WARNINFWALLET 1855-0628 ariesgold.kr